

이재명 “출석 하는데 무슨 방탄 ... 與, 국조 연장 협조해야”

민주당 최고위...“이태원 참사” 꼬리 자르기 아닌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윤 대통령 한·미 공동 핵 연습 발원 경솔...무능한 외교·안보 개편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제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될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당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이미 기존에 답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과거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어서 제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

씀드리지는 않을 것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선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을 거론하며 “집대축구식 뭉치를 부려온 여당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다”며 “여당은 결과해지 자세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도 심각한데 결국 위선은 탈끝도 견들지 못하고 현장 실무직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이 미국과 핵전력 공동 기획, 공동연습 논의 중이라는 발언을 하자마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No)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 경제 혼란의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참사, 안보참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무능한 현재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3 협의체’ 한달만에 재가동

정부조직법 개정안·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안 등 처리 논의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뜻을 올렸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 장기화에 후순위로 밀렸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중·더불어민주당 김

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에서 각각 3인이 참여한다.

당초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여야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3 정책 협의체의 논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폐

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공운법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임기제 정부조직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어 협로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홍근 “이상민 자진 사퇴 안하면 탄핵”

“이태원 국조 단독으로도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

살’에 선을 긋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거론하며 제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화두로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모두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용산경찰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질타

국조 첫 청문회...野 ‘마약 수사에 역량 집중’ 의혹 집중 제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연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쫓

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전 의원은 ‘참사 당일 9시 57분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의 발언에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며 “(신속히) 경비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전 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며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꼬아붙였다.

야당은 경찰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윤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은 참사 이틀 전인) 이태원 지역에 형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마약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올해 인파 운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느냐’라는 장 의원의 물음에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광주시당 “내년 총선에 1석 이상 당선”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은 4일 시당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당세 확장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정현 위원장을 비롯,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 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현 시당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광주시당은 올해 3가지 목표로 뛰겠다”면서 “당세확장을 위해서는 당원확보가 최우선이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

겠다”면서 “지방선거 지지율을 뛰어넘어 지역구 1석 이상 당선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발전하고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당원 확보가 우선이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실현과 지역발전 위해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신년인사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경매, 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